

중동-이슬람교의 그늘에 비친 빛

2012년 12월 2일, "거룩한 전쟁!"을 외치며 존 목사의 교회를 덮친 알카에다

翌日年4年十九日記号号

기독교 제한 국가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그들의 모습에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4)"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교자의 소리가 설립된 56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다가가는 일은 그들을 돌보는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

게 됩니다. 우리 원수들은 창조주로부터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런 원수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회개와 영생으로 이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번 소식지에는 중동 사역자와 평신도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담겨있습니다. 이들은 폭력적인 공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법을 보여줍니다. 또한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사람들이 생명의 주님을 찾을 수 있게 인도하는 기독교 서점 주인의 이야기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를 참조해주세요.



죽을 준비가 된 교회

2012년 12월 2일 주일 아침, 존Jon 목사는 강단에 서 있었다. 그때 "거룩한 전쟁을 위해!"를 외치며 알카에다 무장 대원들이 예배당에 들이닥쳤다. 그 이슬람교도들은 겁에 질린 성도들을 자리에서 끌어내 구타하기 시작했다. 그중 우두머리가 명령하자, 부하들은 성도들에게 총을 겨누고는 모두 쏴죽이겠다고 위협했다.

존 목사는 그 혼란한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말했다. "하늘이 열리는 게 보이더니, 천사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존 목사는 천국의 환상에 압도되어 "하나님이 우릴 환영해주고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외쳤다.

긴박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존 목사가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자 성도들 가운데 거룩한 정적이 흘렀다. 성도들은 울음을 멈추 고 구원자를 만날 준비를 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 "성경에서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국이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성도들이 더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느껴지자, 이슬 람교도들은 불안해졌다. 그들은 성도들을 내버려두고 교회를 약탈 하기 시작했다. 교회 공동체의 물건들을 비롯해 심지어 성경까지 빼 앗았다. 그리고는 성도들을 향해 다시 교회 건물로 돌아와 모이면 정말 죽이겠다고 경고하고 마을을 떠났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날,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다. 존 목사가 말했다. "우리 전부 죽음을 준비하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슬람교도들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 일부 중동 지역은 성경이나 기독교 문서에 대한 접근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존 목사 같은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돕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복음!

몇 년 전 중동으로 이주한 존 목사는 복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다 른 전도자들을 초청해 공개 집회에서 강연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현지 무슬림들의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존 목사에 대한 허위 고소를 제기했고, 결국 존 목사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존 목사는 약 25명의 수감자들과 한 감방에 있게 되었는데, 그들 은 대부분 이슬람 극단주의자였다. 위험한 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으 면서도 존 목사는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에 충실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할 준비를 했다. "내 소망은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요." 존 목사가 말했다.

어느날 한 교도관이 심각한 눈병에 걸리자 존 목사는 그를 위해 기 도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며칠 후, 그 교도관의 시력은 완전히 회복 되었다.

존 목사와 같은 감방에 있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결국 더 이

상 그를 그대로 둘 수 없다고 결의했다. "어느 밤, 옆에서 자던 남 자가 내게 달려들었어요. 방에 있던 사람들 모두 '알라후 아크바 르! 위대하신 알라신! '라 외치고는, 이슬람 맹세인 '샤하다 Shahada'를 선 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를 죽이겠다는 뜻이었죠. 한 수감자 가 칼을 꺼냈고, 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값진 대가를 치러야 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존 목사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다. "내가 순교자로 죽으면 예수님이 나를 스 데반처럼 환영해주시겠지요. 나는 '이제 천국에 가겠구나. 오늘은 참 좋은 날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존 목사는 그날 순교하지 않았다. 그가 기도해주었던 교도 관이 급히 달려와 그를 구해주었던 것이다.

계속된 준비

최근 한 남자가 길거리에서 존 목사를 폭행했다. "그 사람이 내 목 에 칼을 들이댔어요. 주변 사람들은 '죽여! 죽여버려!'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이유에선지 그 남자는 갑자기 존 목사를 풀어주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어떤 남자가 교회에 들어와 맨 앞자 리에 앉았는데, 존 목사는 그를 위해 긴급히 기도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하나님이 말씀해주셨어요. 그가 폭탄을 갖고 있고, 곧 터뜨릴 거라고 말예요." 존 목사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님, 그 를 돌보시는 주님께서 그를 만져주소서." 그때 남자가 흐느끼며 이 렇게 고백했다. "난 폭탄을 터뜨리고 싶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져요. 나도 그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그 폭탄 테러범은 폭발물 을 갖고 있음을 시인하며 알카에다가 보낸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그 러나 그날 그는 교회를 폭파하는 대신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고 세례 를 받았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일들이 삶에서 일상적으로 일 어나고 있지만, 존 목사를 비롯해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은 언제나 폭력적인 죽음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존 목사는 교인들에게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가르치면서 순교 의 가능성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그들을 준비시키고 있다. 존 목사 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는 누가복음 17장 33절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골고다 언덕을 준비하게 합니다. 준비된 자들에겐 두려움 이 없어요."

존 목사는 모든 기독교인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 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로 인해 핍박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핍박을 최고의 축복으로 받아 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가득찬 새로운 세대를 일 으키고 계십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존 목사를 비롯한 중동 성도들을 지원하고, 특히 생계를 이어가도록 돕고 있다.



존 목사는 계속해서 중동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 (보안상 얼굴을 공개하지 않음)

2023년 12월기도달로

facebook.com/VOMKorea.kr

instagram.com/vomkorea

youtube.com/voiceofthemartyrskorea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1

🔲 카메룬

■ 아프가니스탄

아프간 기독교인들의 필요가 모두 채워지도록

___인도

우물물을 긷다가 주민들에게 공격당한 기독교인 가족을 위해 🛄 아랍에미리트

규제가 더 심한 나라에서 이주해 온 이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간다에 이슬람교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 우간다

성경 지식과 지혜에 뿌리 내린 기독교 지도자를 더 세워주시기를

10

🔟 튀니지

기독교인들과 말씀에 갈급한 이들에게 성경이 전해지도록

파키스탄

파키스탄으로 피신한 아프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 모리타니

기독교 지도자들이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미나, 메프리 같은 최전방 사역자를 위해

🔟 스리랑카

15

25

미전도 종족 가운데 가정교회를 세우는 목회자들을 위해

17

💹 소말리아 이슬람교에 환멸을 느낀

많은 젊은이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耳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기독교인들이 박해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도록

🔚 우즈베키스탄

교회가 모이면 벌금을 내는 상황에서 미등록 교회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 수단

사역 물품과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누바 산악지대 성도를

🔚 오만

새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줄 공동체를 찾도록

24

25 성탄절

26

27

28

● 알제리

더 많은 교회를 폐쇄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무산되도록

🚾 이라크

집을 버리고 피신해야 했던 이라크 기독교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모잠비크

이슬람교도들의 공격으로 파괴된 교회의 재건을 위해 교회가 사랑과 담대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도록

|||| 방글라데시

위해

부패가 만연한 이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도록

투르크메니스탄

31

💹 요르단

훈련받은 기독교인들이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사무실]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 26, 지층 순교자의 소리 후원계좌: 국민은행 463501-01-243303 예금주: 사)순교자의소리 www.vomkorea.com | 02-2065-0703

지금 보고계신 순교자의 소리 무료 소식지,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	1 100	
	금요일	토요일
	1	2

■케냐

오디오 성경을 받은 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증인이 되도록 인터넷과 서점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접할 수 있도록

· 바레인

🚥 리비아

디지털 성경을 이용하는 성도들이 당국에 발각되지 않도록 💴 북한

인신매매된 북한 여성을 중국에서 섬기는 사역자들을 위해

🗾 탄자니아

전도 물품을 받은 목회자와 전도자들이 위로를 받도록 ■ 이란

거짓된 교리를 따르던 사람들이 복음에 마음을 열도록

💹 에리트레아

체포와 투옥의 위협에도 성도들이 계속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 부르키나파소

예배당이 공격을 당해도 담대히 예배하는 남부 성도들을 위해

29 30

■카타르

목숨을 걸고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 이집트

믿음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여성들이 안식처를 찾을 수 있도록





핍박받는 중동 성도들에게 오디오 성경을 보내주세요!

중동의 전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박해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마을 공동체와 가족들에게도 핍박을 당 합니다.

최근 중동의 한 나라에서 기독교인 소년이 신성모독 혐의로 구타를 당해 사망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해자들은 현재 그 소년의 마을 주민들 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과 박해, 심지어 죽음에 직면한 중동 기독교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 상당수가 아직도 성경을 갖고 있지 않으며, 성경을 가진 사람 중에는 읽을 줄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소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Faith Comes by Hearing^{오디오 성경 보급 기관}'와 동역하여 중동 기독교인들에게 **태양열 오디오 성 경**을 제공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기부금 2만원으로 중동 기독교인 한 명에게 이 태양열 오디오 성경을 보내 신구약 말씀을 듣게 할 수 있습니다. 20만원으로는 무려 10 명의 중동 기독교인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역하기 원하는 한국 교회나 성도님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통해 12월 31일까지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순교자의 소리 웹사이트: www.vomkorea.com/donation (납부 유형에서 **'성경'** 선택)
- 2. 계좌이체

국민은행 463501-01-243303 예금주: 사)순교자의 소리 (본인 성명 옆에 **'성경**'이라고 기재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빛을 하하아

에마안Emaan은 매우 독실한 이슬람교도였다. "난 무함마드Muhammad라는 인물을 사랑했었어요. 마음속으로 내가 그의 아내 중 하나로 선택받았다면 좋았을 거라고 바랐을 정도로요"라고 에마안 은 말했다. 에마안은 이집트에 있는 집을 떠나 이슬람교의 가장 거룩 한 성지를 방문하는 순례 여행을 여섯 번이나 다녀왔다. 무슬림이라 면 한 번쯤은 방문해야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성지 여행인 하지Haii를 회상하면서 에마안은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Medina에 있는 '예언 자 사원Mosque of the Prophet'에 갔을 때는 정말 돌아오기가 싫었어 요"라고 말했다. 이슬람교의 열혈 신봉자였던 에마안은 늘 이슬람교 가 요구하는 것 이상을 실천했었다. 그러나 마지막 그녀의 선택 은 이슬람교를 떠나는 것이었다.

에마안의 믿음이 흔들린 것은 무함마드의 마지막 아내인 아이 샤Aisha가 결혼 당시 9살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였다. 자 신의 딸이 그 나이에 가까워지자 에마안은 그렇게 어린아이를 신부로 삼은 이슬람교 창시자의 부적절함에 충격을 받았다. "이 일로 인해 무함마드의 성품과 인격에 의문을 품게 되었고, 진짜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싶은 강한 충동이 일었어. 요."에마안이 말했다.

변화된 삶

그러던 어느날 에마안은 꿈을 꿨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는 어떤 사 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들The Names of God』 이라는 책을 들고 있었다. 하나님의 수많은 속성들이 열거되다가 '스스로 있 는자 I AM' 하나로 귀결되는 내용이었다.

이 꿈 이후 에마안은 남편과 함께 새로 위성 TV를 신청했다. 보통 설치 기사들도 무슬림이기 때문에 기독교 채널을 걸러내는데, 에마 안의 집에 온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 에마안은 아랍어로 된 기독교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그토록 찾던 해답들을 얻기 시작했다.

에마안은 성경을 구했고, 이후 4년 동안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비교 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이슬람교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 었다. 그녀가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남편의 분노가 폭 발했다. "남편은 나를 심하게 때리곤 했어요. 그러다 지치면 날 때릴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시부모님에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라고 에 마안은 말했다. 수년 동안 지속된 구타로 인해 그녀는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다.

그토록 야만적인 학대를 견뎌내면서 에마안은 육체적, 정서적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 두 사람이 이혼을 할 때. 처음에 정부 관리들은 그녀를 배교자로 간주해 불리한 판결을 내렸었다. 심지어 에마안의 친정 부모까지 그녀 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 으로 에마안은 결국 자녀 양육권을 얻게 되었다.

이혼 후 에마안은 성경 공부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그 곳에서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아바시Abasi를 만났다. 아바시의 가족들은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었 다. 두 사람은 결혼하여 다른 도시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했다.

호하의 위험

에마안과 아바시는 기독교인으로서 세례를 받았지만, 공식 신분증에 그들은 여전히 무슬림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이집 트에서는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정부로부터 새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은 전통 기독교 공동체의 일부 기독교인들에게 깊은 의심을 받아야 했다.

무슬림을 개종시켰다는 혐의를 피하기 위해 많은 전통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 신분증이나 정교회 십자가 문신이 없는 사람들의 교회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에마안과 아바시는 교회에 출석하는 데 전념했다. "우리 아이들은 기독 교적인 삶을 살면서 교회 안에서 성장하길 바랐거든요. 설령 위험해진다고 해도 매주 주일마다 아이들을 교회에 참석 시키고 싶었어요."에마안이 말했다.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주장하는 이 '무슬림들'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누군가 이들이 성찬에 참 여한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온라인에 올렸다. 무슬림들은 에마안과 아바시의 기독교 개종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고, 이에 경찰은 아바시를 3일 동안 구금하고 죽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10대인 두 사람의 딸과 아들도 학교와 동네에서 조롱과 괴롭힘, 구타를 당했다. 에마 안은 아들을 자퇴시켜 수도원으로 보내야 했다. 에마안의 딸은 곧바로 여러 무슬림 학

생들에게 납치를 당했다. 그들은 에마안의 딸을 구타하고 기 독교 신앙을 포기하게 하려 했지만, 딸은 거부했다. 얼마 후 딸은 의식을 잃었고, 납치범들은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했 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에마안의 딸은 사막에 홀로 버 려져 있었다. 다행히 지나가던 관광버스가 딸을 태 워주었다.

이 납치 사건 이후, 에마안과 아바시는 조국을 떠 나기로 결심했다.

전 남편에게 수년간 신체적 학대를 당했던 에마안은 그 흉터를 십자가 문신으로 가렸다. 이집트에서 십자가 문신은 보통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의 표시로 사용된다.

李叶玉

가족은 돈도, 친구도 하나 없는 레바논에 정착했다. 그곳에서 이들은 자신들 을 포용해주는, 생기 넘치는 교회를 만나게 되었다. 에마안은 기독교인으로서 성장했고 점차 자신을 학대했던 이들을 용서하게 되었다. "우리를 모욕하고 고문하고 상처 준 무슬림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에마안이 말했다.

에마안 가족은 가진 게 별로 없지만, 어려운 재정 상황 가운데서도 에마 안은 여전히 기쁨을 잃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합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만족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 삶이 너무 나 아름답거든요!"

현재 에마안과 아바시는 여러 소그룹을 인도하며 무슬림들을 섬기고 있 다. 에마안은 이제 무슬림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본다. 에마안은 무슬림이 었던 삶을 회상하면서 "마치 죽음처럼 너무도 힘든 삶이었어요. 우리가 모 든 걸 가졌다 해도 그리스도의 축복이 없다면, 흑암 속에 있는 자들에게 축복 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흑암에서 벗어난 장본인인 에마안 은 이제 무슬림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도하기로 결단했다.



그들은 지금?

이란: 유세프 나다르카니

2023년 2월 26일,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사면령 때 유세프 나 다르카니Youcef Nadarkhani도 석방되었다. 유세프는 2018년, '국가 안보 위반' 및 '시 온주의 기독교 조장'이라는 거짓 혐의로 다른 이란 교회 성도 3명과 함께 체포된 후 징 역 10년형을 선고받았었다.

유세프와 그의 아내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는 이란에서 불법이었고, 유세프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여러 차례 투옥된 적이 있었다. 2010년에는 배교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2012년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인 이란에서 유세프 부부 같은 기독교인들은 지속적으로 투옥 위협을 받고 있 으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수감 중이거나 가택 연금 상태로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 2012년 배교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고 출소한 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는 유세프

나이지리아: 앨리스 벌루스



▲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손에 큰 상실을 겪었지만 앨리스와 자녀들은 전 세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들의 도움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1년 1월 13일, 풀라니Fulani쪽 무장 무슬림들이 나이지리아 플래토Plateau 주에 있는 앨리스 벌루스Alice Bulus의 마을을 공격해 그녀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총으로 쏴 죽이는 사건이 있었다. 18개월 후, 그들이 다시 마을을 공격했고 앨리스의 집을 불태웠다. 앨리스는 네 자녀를 데리고 마을에서 도망쳐야만 했다.

순교자의 소리는 이 가정에 생활비를 지원했고, 이제 앨리스 가족은 전 세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의 도움으로 회복되고 있다. 앨리스는 농장 일을 해서 땅을 조금 사고 집도 지 었다. 아이들은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고, 큰 아들은 지역 대학에 입학했다.

그곳 최전방 사역자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앨리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 다. 앨리스는 하나님이 자신을 신실히 돌보시는 분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웠어요. 앨리스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에게서 받은 지원에 대 해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12월은 중동의 형제자매를 기억하는 달!

아래 도서와 영상으로 중동의 형제자매들과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21 - 콥트 순교자들의 땅에 다녀오다」

시리아에서 순교당한 21명의 콥트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로 순교자적인 삶을 제시해주는 책

10,000원

「이슼람이냐 죽음이냐,

예수님을 부인해야 살려준다는 협박에도 신앙을 지킨 신실한 기독교인들의 이야기

10.000원



2024년 초. 순교자의 소리가 서울과 대전에 이어 부산 사무실을 오픈합니다!

사무실 관리자, 자원봉사 담당 간사, 번역 담당 스탭도 채용할 예정이며,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방문하셔서 함께 자원봉사자로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역자 지원 및 추천을 원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2065-0703으로 연락주세요!





그들이 목소리 단편영상 시청

오른쪽 QR코드를 참고하세요





2024년 4월, 탈북민들의 국악 공연 "존 로스 성경극"에 동역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공연 시설을 갖춘 교회를 추천해주세요!

(서울, 대전, 부산, 광주)

- 공연예술가: 연출가 및 한국무용 강습 보조(서울)
- •공연무대: 무대장치, 음악, 분장, 조명 등
- •공연의상: 한국무용 공연복을 위한 옷감 지원 및 재단/재봉
- •촬영: 공연 실황 영상 및 사진 촬영

위의 분야에 동역하기 원하시면 010-3151-2065로 연락주세요







순교자의 영성을 전하는 H로 VOM 도너

증인이 되는 법을 제시하는 책



『지하교회를 준비하라』 『지하교회를 심으라』 『지하교회로 살라』

리처드 웜브란트/에릭 폴리 각 10,000원

동성애를 비롯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전략을 웜브란트와 폴리 목사가 영적으로 함께 파헤치면서 한국교회가 다가오는 핍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예언적인 책

한국 기독교인의 을 의하 채



「새 하나님, 새 민족」 15.000원

「온전한 헌신」 1,2 각 10.000원



「영웅의 여정」



10 000원 10 000원

북한 사역의

리처드 웜브란트 목사의 저서 및 전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10 000원



「마리ㅋ시와 사탄」 10 000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10 000원



「웜브란트」



향하여」 15,000원 15,000원

핍반받는 기독교인들 틀의 이야기



「21 - 콥트 순교자들의 땅에 다녀오다 1 10,000원



「이슬람이냐 죽음이냐」 10,000원



「IS와 감옥 안에서」 10,000원



「공산주의는 죽지 않았다」 10매 1세트 10,000원

로스 성경 & 조선어 성경



조선어 스터디 성경 (찬세기/신약) 10,000원



[조선어/쉬운 영어 성경] (찬세기/시약) 15,000원



조선어 스터디 성경 30 000원